

한국사

2018. 8. 18 국가직 7급 한국사 출제 경향 분석**전체적으로 시험에 대한 강평**

일반적으로 충실하게 공부한 수험생들에게는 85점 정도의 난도의 시험이다. 7급 시험으로는 변별력 있는 시험이었으나 단순한 암기나 서브 위주의 공부만을 한 수험생 입장에서는 사료나 지엽적인 부분을 묻는 문제가 출제되어 다소 어려움이 있었으리라 본다.

첫째, 유형별로 보면

사료형 문제가 8문제, 지문형 7문제로 전체적으로 문제 출제가 단순한 암기보다 종합적 사고를 요하는 문제들로 다수 출제되었다. 나머지는 서술형의 문제로 출제되어 유형도 적절한 안배가 이루어졌기에 암기 위주가 아닌 정선된 기본서의 사료를 접목한 상황 및 배경을 분석하여 체계적으로 학습을 해야만 고득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시험이다.

둘째, 제도사나 단원별로 보면

큰 틀에서 제도사로 분류해 보면 정치사 문제가 12문제, 경제사 1문제, 문화사 7문제로 다소 사회나 경제 부분 출제가 미흡했고 문화사가 상대적으로 많이 출제되었다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인물사와 관련하여 7문제나 출제가 이루어진 것도 다소 다양한 출제 유형에 비추어 볼 때 아쉬움이 많다. 단원별로는 선사 시대와 초기 국가 문제가 1문제, 고대 국가 3문제, 고려 3문제, 조선 4문제, 구한말 4문제, 일제강점기 3문제, 현대 1문제, 통합 1문제 등 전체적으로 안배가 어느 정도는 이루어진 것으로 사료되기에 전 단원에 걸쳐 골고루 안배하여 학습해야 한다고 본다.

셋째, 특징적 문제를 보면

다소 수험생들에게 난해한 문제는 고려 승려 문제, 이이 사료 내용 파악하는 문제가 어려웠고 중인 시집이나 주시경 문제도 수험생에 따라 다소 어려운 문제로 출제되었다고 본다. 그러하기에 어려운 3~4문제를 풀 수 있는 내공을 기르는 학습이 필요하다.

결국 고득점을 목표로 하는 수험생은 열심히 공부하고도 미흡한 수험서나 강의를 통해서 원하는 점수를 얻기 힘들기에 한국사의 기본적인 흐름과 뼈대를 잡을 수 있는 흐름노트나 체계적이고 심화된 내용과 사료를 가미한 기본서와 강의를 통해 학습하는 것이 합격의 길로 가는 정석으로 본다. 언제나 꾸준한 노력으로 합격을 이루는 수험 생활이 이루어지길 기원한다.

■ 한국사 출제 문항 분석

문항	출제 영역(단원)	유형	난도(난이도)
1	고조선	사료형	하
2	조선 초기 국왕의 업적	서술형	중
3	제2차 갑오개혁	서술형	중
4	통일방안과 역사적 사건	사료형	하
5	1940년대 임시정부	지문형	중
6	1880년대 개화정책	지문형	중
7	이이	사료형	상
8	예송논쟁	사료형	중
9	삼국시대 왕의 업적	도식형	중
10	고려 승려	지문형	상
11	공민왕의 업적	사료형	중
12	최익현	사료형	중
13	백제역사유적지구	지문형	중
14	의상	사료형	하
15	지역사	사료형	중
16	주시경	사료형	상
17	민족혁명당	지문형	중
18	녹읍제도	사료형	상
19	중인 문학의 이해	서술형	상
20	신채호	사료형	하

1. ㉠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주나라가 쇠약해지자 연나라가 스스로 왕을 칭하고 동쪽으로 침략하려 하였다. ㉠의 후(侯) 역시 스스로 왕을 칭하고 군사를 일으켜 연나라를 공격하려 하였는데, 대부인 예(禮)가 간하여 중지하였다.

- ① 전연의 공격을 받아 심한 타격을 받았다.
- ② 매년 10월 무천이라는 제천행사를 열었다.
- ③ 박·석·김씨가 왕위를 교대로 계승하였다.
- ④ 8조의 법을 제정하였는데 세 조항만 전해진다.

• 정답 : ④
 • 출제 영역 : 고조선
 • 해설 : ㉠은 고조선이다. ④ 고조선의 8조법에 대한 설명으로 한서지리지에 3개 조항만 전해지고 있다.
 • 바로알기 : ① 부여 ② 동예 ③ 신라에 대한 설명이다.
 • 민주국사 P. 76, 82

2. 조선 초기 국왕의 업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태조는 한양으로 천도하고 한성부로 이름을 바꾸었다.
- ② 태종은 창덕궁과 창경궁을 새로 건설하였다.
- ③ 세종은 사가독서제를 실시하여 학문 활동을 장려하였다.
- ④ 세조는 간경도감을 설치하여 불경을 번역하고 간행하였다.

• 정답 : ②
 • 출제 영역 : 조선 초기 국왕의 업적
 • 해설 : ② 창경궁은 세종이 태종의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 지은 수강궁 자리에 성종 때 대비들을 모시기 위해 증건 하고 이름을 창경궁이라 하였다.
 • 바로알기 : ① 태조 때 정도전 등의 노력으로 한양으로 천도한 이후 이곳의 기반 시설을 갖추고 이름을 한성부라고 하였다. ③ 세종은 학자들에게 휴가를 부여하여 학문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사가독서(賜暇讀書)제를 실시하였다. ④ 세조는 불교의 진흥을 위해 간경도감을 설치하고 월인석보 등 불경을 간행하였다.
 • 민주국사 P. 449, 451, 452, 455

3. 군국기무처가 폐지되고 시행된 제2차 갑오개혁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 ① 교육입국조서를 반포하였다.
- ② 종래의 6조를 8아문으로 개편하였다.
- ③ 경무청을 신설하여 경찰제도를 도입하였다.
- ④ 궁내부를 신설하여 왕실과 정부 사무를 분리하였다.

- 정답 : ①
- 출제 영역 : 제2차 갑오개혁
- 해설 : 제2차 갑오개혁의 일환으로, 1895년 국가의 부강이 교육에 있다는 교육입국 조서가 반포되어 사범학교 등 이후 여러 학교들이 설립되었다.
- 바로알기 : ②③④ 모두 1차 갑오개혁 때 실시된 정책들이다.:
- 민주국사 P. 892~895

4. (가)와 (나)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가) 남북한은 자주.평화.민족적 대단결의 통일 원칙을 명시한 7.4 남북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나) 남북한은 유엔에 동시 가입하였고, 같은 해에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남북 기본 합의서)'를 채택하였다.

- ① 4.19 혁명 발발
- ② 금융실명제 실시
- ③ 5.18 민주화운동 발발
- ④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시작

- 정답 : ③
- 출제 영역 : 통일방안과 현대사 사건
- 해설 : (가)의 7.4 남북 공동 성명은 1972년에 발표되었고, (나)의 남북 기본 합의서는 1991년에 발표되었다. ③ 5.18 민주화 운동은 1980년에 일어났다.
- 바로알기 : ① 4.19 혁명은 1960년에 발발하였다. ② 금융실명제는 1993년 김영삼 정부 때 시행되었다. ④ 제2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은 1967년 박정희 정부 때 시작되었다.
- 민주국사 P. 1070~1074

5. 1940년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의열 활동을 위해 한인 애국단을 결성하였다.
- ㄴ. 삼균주의를 바탕으로 한 건국 강령을 발표하였다.
- ㄷ. 대일 선전 포고를 하고 연합군과 합동 작전을 전개하였다.
- ㄹ. 정부의 형태가 대통령제에서 국무령 중심의 의원내각제로 바뀌었다.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ㄷ, ㄹ

- 정답 : ③
- 출제 영역 : 1940년대 대한민국 임시정부
- 해설 : ㉠ 조소앙의 3균주의를 토대로 대한민국 건국강령은 1941년에 발표되었다. ㉡ 한국광복군의 대일 선전 포고는 태평양 전쟁 발발 후인 1941년이며, 이후 1943년에는 연합군과 연합 작전을 전개하였다.
- 바로알기 : ㉢ 한인 애국단은 1931년 상하이 설립되었다. ㉣ 국무령 중심의 의원내각제는 2차 개헌으로 1925년~1927년 동안 실시되었다.
- 민주국사 P. 1081, 1163

8. ㉠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예조가 아뢰기를, “㉠자의 왕대비께서 선왕의 상에 입어야 할 복제를 결정해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삼년복을 입어야 한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기년복(期年服)을 입어야 한다고 하니 어떻게 결정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국왕은 여러 대신에게 의견을 물은 다음 ㉢기년복으로 결정하였다.
- 『조선왕조실록』 -

- ① ㉠ - 인조의 계비 조대비를 가리킨다.
- ② ㉡ - 윤휴는 왕통을 이었으면 적장자로 보아야 하므로 3년복을 입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③ ㉢ - 송시열은 ‘체이부정(體而不正)’을 내세워 기년복을 입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④ ㉣ - 『국조오례의』의 상복 규정에 따라 기년복으로 결정되었다.

• 정답 : ④
 • 출제 영역 : 예송논쟁
 • 해설 : 현종(1659년) 때 기해예송에 대한 사료이다. 효종이 사망한 후 자의대비의 복제를 두고 남인 윤휴, 허적은 국조오례의에 따라 3년설을, 서인 송시열, 송준길은 주자가례에 따라 기년설을 주장하였다. ④ 서인의 '천하동례'에 따라 기년설이 결정되었다.
 • 바로알기 : ① 효종 때 인조의 계비인 자의대비의 복상문제로 예송논쟁이 일어났다. ② 윤휴는 차남이지만 왕위를 계승했으므로 국조오례의에 따라 3년상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③ 송시열은 효종이 장자가 아닌 차남이기 때문에 기년설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민주국사 P. 503~504

9. (가) 시기에 있었던 역사적 사실로 옳은 것은?

고구려 태학 설립	백제 『서기』 편찬	신라 『국사』 편찬	고구려 『신집』 편찬 (가)

- ① 고구려 장수왕이 백제 한성을 함락하였다.
- ② 금관가야가 가야 연맹의 주도권을 상실하였다.
- ③ 신라에서 건원이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였다.
- ④ 백제가 노리사치계를 보내 일본에 불상과 불경을 전하였다.

• 정답 : ④
 • 출제 영역 : 삼국시대 왕들의 업적
 • 해설 : 신라의 「국사」편찬은 진흥왕 때인 545년, 고구려의 「신집」편찬은 영양왕 때인 600년에 이루어졌다. ④ 백제 성왕은 552년 노리사치계를 보내 최초로 일본에 불상과 불경을 전하였다.
 • 바로알기 : ① 장수왕이 개로왕을 죽이고 한성을 함락한 것은 475년이다. ② 금관가야가 주도권을 상실한 시기는 광개토왕의 공격으로 임나가라 종말성에 이르렀던 400년 무렵이다. ③ 법흥왕이 건원이라는 독자적 연호를 사용한 시기는 536년이다.
 • 민주국사 P. 230, 353

10. (가) ~ (라) 승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가) 참회법과 미타정토신앙을 실천행으로 강조하는 결사 운동을 전개하였다.
 (나) 송광산 길상사를 근거지로 새로운 선풍(禪風) 진작에 힘을 기울여 개혁적인 승려들과 지방민의 호응을 얻었다.
 (다) 북악파 중심으로 남악파를 통합하여 화엄교단을 정리하고 당시 불교계를 주도하였다.
 (라) 고려와 송, 거란 등의 불교 저술을 망라한 '신편제종교장총록'을 작성하고 속장경을 간행하였다.

- ① (가) - 중국 화엄종의 방계(傍系)인 이통현의 화엄사상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
 ② (나) - 선을 체(體)로 삼고 교를 용(用)으로 삼아 선과 교의 합일점을 구하였다.
 ③ (다) - 화엄사상의 입장에서 법상종 세력을 흡수하여 성상윤회 사상을 표방하였다.
 ④ (라) - (다)의 화엄학이 실천의 문제를 떠나 지나치게 관념화되어 있음을 비판하였다.

- 정답 : ①
 • 출제 영역 : 고려의 승려
 • 해설 : (가) 요세 (나) 지눌 (다) 균여 (라) 의천이다. ① 당의 승려 이통현은 유교와 불교에 정통했는데, 특히 화엄경 연구에 심혈을 기울인 승려로 의천이나 지눌에 영향을 끼쳤다. 요세는 강진 만덕사에서 백련 결사를 조직하였다.
 • 바로알기 : ② 지눌은 선을 근본으로 삼고(體) 교는 수단으로 삼아서(用) 선교를 일치를 주장하였다. ③ 균여는 귀법사를 창건하고 화엄사상의 입장에서 법상종을 포용하기 위해 성상윤회라는 사상을 제시하였다. ④ 의천은 균여의 화엄학은 교학만 있고 실천이 결여되어 있다며 균여를 크게 비판하였기에 천태종은 의천이 죽은 이후 다시 균여파와 의천파로 분열하였다..
 • 민주국사 P. 394~399

11. 다음과 같은 시기에 재위하였던 국왕대의 사실로 옳은 것은?

성균관을 다시 짓고 이색을 판개성부사 겸 성균관 대사성으로 삼았다. ... (중략) ... 이색이 다시 학칙을 정하고 매일 명륜당에 앉아서 경전을 나누어 수업하였는데, 강의를 마치면 함께 논쟁하느라 지루함을 잊었다. 이에 학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하였고 서로 함께 눈으로 보고 느끼게 되니, 정주성리학이 비로소 흥기하게 되었다. - 『고려사』 -

- ① 정동행성을 설치하였다.
 ② 정치도감을 설치하였다.
 ③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하였다.
 ④ 각염제를 처음으로 시행하였다.

- 정답 : ③
 • 출제 영역 : 공민왕의 업적
 • 해설 : 흥건적 침입으로 소실된 성균관을 공민왕 때 신돈이 다시 건립한 이후 이색을 대사성으로 임명하여 순수 유학 중심으로 교육하였다. ③ 공민왕은 신돈을 등용하여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하였다.
 • 바로알기 : ① 정동행성은 충렬왕 때 설치되었다. ② 정치도감(정리도감) 설치하는 은 충목왕 때이다. ④ 각염제(소금전매제)는 충선왕 때 실시하였다.
 • 민주국사 P. 390사료

12. 다음과 같이 주장한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오호라. 작년 10월에 저들이 한 행위는 만고에 일찍이 없던 일로서, 한 조각의 종이에 강제로 조인하게 하여 5백 년 전해오던 종묘사직이 마침내 하룻밤 사이에 망했으니 …(중략)… 우리 의병군사의 올바름을 믿고, 적의 강대함을 두려워하지 말자. 이에 격문을 돌리니 다 함께 일어나라.

<보기>

- ㄱ. 의병을 이끌고 홍주성을 점령하였다.
- ㄴ. 대마도(쓰시마)로 압송된 후 순국하였다.
- ㄷ. 왜양일체론을 주장하며 개항에 반대하였다.
- ㄹ. 13도 창의군을 이끌고 서울진공작전을 지휘하였다.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ㄷ, ㄹ

- 정답 : ③
- 출제 영역 : 최익현
- 해설 : 제시된 자료는 을사조약 체결 이후 최익현의 격문이다. ㉠ 최익현은 왕이 보대 진위대의 전 투에서 동포끼리는 싸울 수 없다며 스스로 부대를 해산하고 포로가 되어 대마도에 유폐되었는데 그곳에서 순절하였
- 순국하였다. ㉡ 최익현은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기 직전, 일본의 개항 요구에 반대하고 왜양일체론을 토대로 5불가소를 올렸다.
- 바로알기 : ㉢ 민종식에 대한 설명이다. ㉣ 이인영, 허위 등에 대한 설명이다.
- 민주국사 P. 917~923, 1006

13. 다음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백제역사유적지구 문화유산 중 부여군에 속한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정림사지
- ㄴ. 공산성
- ㄷ. 부소산성과 관북리유적
- ㄹ. 송산리 고분군

- ① ㄱ, ㄷ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ㄴ, ㄹ

- 정답 : ①
- 출제 영역 : 유네스코 세계유산
- 해설 : 부여시에 속하는 문화유산으로는 부여 사비성과 관련된 관북리 유적(관북리 왕궁지) 및 부소산성, 정림사지, 능산리 고분군, 부여 나성 등이 있다.
- 바로알기 : ㉠ ㉡ 공산성과 송산리 고분군은 공주시에 속하는 문화유산이다.
- 민주국사 P. 801

14. 밑줄 친 ‘그’의 행적으로 옳은 것은?

왕이 수도(금성)에 성곽을 쌓으려고 문의하니 그가 말하기를, “비록 초야에 살더라도 정도(正道)만 행하면 복업(福業)이 오래 갈 것이요, 만일 그렇지 못하면 여러 사람을 수고롭게 하여 성을 쌓을지라도 아무 이익이 없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왕은 이에 성 쌓는 일을 그만두었다. - 『삼국사기』 -

- ① 일심사상을 바탕으로 화쟁사상을 주장하였다.
- ② 당에서 유학하고 돌아와 부석사를 창건하였다.
- ③ 당에 들어가 유식론을 독자적으로 발전시켰다.
- ④ 가자산파를 개창하면서 선종을 보급하기 시작하였다.

• 정답 : ②
 • 출제 영역 : 의상
 • 해설 : 문무왕 때 진골인 의상에 대한 사료로 의상은 문무왕이 도성을 새로이 정비하려 할 때 백성을 위해 이를 만류하였다. ② 의상은 당나라에 유학을 가서 화엄종의 교조인 지엄에게 화엄학을 배우고 귀국하여 영주에 부석사를 창건하였다.
 • 바로알기 : ① 원효 ③ 원측 ④ 도의가 헌덕왕 때 보림사를 중심으로 최초로 가자산파를 개창하고, 선종을 널리 보급하였다.
 • 민주국사 P. 145

15. 다음 풍속이 행해진 나라의 중심지와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하였던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은?

이곳 사람들은 시체를 가매장했다가 썩은 뒤에 다시 뼈만 추려서 큰 목곽에 넣는다. 가족들의 시신도 모두 여기에 합장했으며, 죽은 사람의 모습을 닮은 인형을 만들어 목곽 옆에 두었다. - 『삼국지』 -

- ① 창녕비
- ② 황초령비
- ③ 사택지적비
- ④ 충주 고구려비

• 정답 : ②
 • 출제 영역 : 지역사(함흥지역)
 • 해설 : 가족공동묘는 옥저의 장례 풍습에 대한 내용이다. 옥저는 함흥지역을 중심으로 위치하고 있었다. ② 황초령비, 마운령비는 신라 진흥왕 때 함경도 지역에 진출하여 세운 비석이다.
 • 바로알기 : ① 창녕비는 창녕군에 세운 비석으로, 진흥왕 때 대가야 복속 이전에 건립하였다.
 ③ 백제의 사택지적비는 부여지역에서 출토되었다. ④ 충주 고구려비는 현재 충주에 건립된 비석으로, 장수왕 때 고구려의 남하 정책과 관련이 있다.
 • 민주국사 P. 88, 130

16. 밑줄 친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독립신문 발간에 관여했던 그는 독립신문사 안에 ‘국문동식회(國文同式會)’를 조직했으며, 1897년 4월에 ‘국문론’이라는 글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는 당시의 문장들이 한문에 토를 다는 형식에 그치고 있다면서 실제로 말하는 대로 글을 쓰는 ‘언문일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① 우리말 큰사전의 편찬을 주도하였다.
- ② 문법 서적인 『국어문법』을 저술하였다.
- ③ 조선어연구회를 주도적으로 조직하였다.
- ④ 한글맞춤법 통일안을 만들어 발표하였다.

• 정답 : ②
 • 출제 영역 : 주시경
 • 해설 : 구한말 주시경은 국어표기법과 음운학에 대해 연구한 후 「국어문법」을 저술하였고 지석영과 더불어 1907년 국문연구소를 설립하여 표기법 통일의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 바로알기 : ① ④ 일제강점기인 1931년에 조직된 조선어 학회의 활동에 대한 설명이다. ③ 조선어 연구회는 1921년 이운재, 최현배 등에 의해 설립되어 가갸날을 제정하고 「한글」잡지를 발간하였다.
 • 민주국사 P. 985

17. 밑줄 친 ‘이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930년대 일제의 중국 침략이 본격화되자, 중국 본토에서 활동하던 독립운동 단체들은 좌우의 대립을 지양하고 민족 연합전선을 형성하기 위해 상하이에서 ‘한국대일전선통일동맹’을 결성하고 민족 유일당 건설을 제창하였다. 이에 여러 단체의 인사들이 난징에서 회의를 열고 이 단체를 창건하였다. 이는 단순한 여러 단체의 동맹이 아니라 단일 정당을 형성한 것이다.

- ① 창설 당시 김구는 참여하지 않았다.
- ② 동북항일연군을 산하의 군사조직으로 두었다.
- ③ 지청천, 조소앙의 독주로 김원봉이 탈퇴하였다.
- ④ 한국독립당, 한국국민당, 조선혁명당 3당의 통합으로 만들어졌다.

• 정답 : ①
 • 출제 영역 : 민족혁명당
 • 해설 : 제시된 단체는 민족 연합 전선의 일환으로 1935년에 김원봉을 중심으로 결성된 민족혁명당이다.
 ① 민족혁명당이 조직된 이후 임시정부의 해체를 요구해 오자 김구 중심의 임정계 지도부는 민족주의계 중심으로 한국국민당을 결성하였다.
 • 바로알기 : ② 민족혁명당 산하의 군사 조직은 동북 항일 연군이 아니라 1938년 조직한 조선의용대이다.
 ③ 김원봉을 비롯한 의열단 계통의 인사들이 민족혁명당을 주도하자, 이에 지청천, 조소앙 계열 등은 탈퇴하였다. ④ 조소앙의 한국독립당, 김구의 한국국민당, 지청천의 조선혁명당 등이 통합하여 만들어진 단체는 1940년 한국독립당이다.
 • 민주국사 P. 1077, 1079

18. ㉠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5월 을사에 태조가 예산진에 행차하여 이르기를, “너희 공경장상은 국록을 먹는 사람들이므로 내가 백성을 자식처럼 사랑하는 마음을 헤아려서, 너희들 ㉠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야 할 것이다. 만약 무지한 가신들을 ㉡에 보낸다면, 오직 거두어들이는 데만 힘써 마음대로 약탈할 것이니 너희 또한 어찌 알 수 있겠는가?” 라고 하였다. - 『고려사』 -

- ① 신라의 토지제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 ② 직역에 대한 대가로 수조권만을 지급한 것이다.
- ③ 대상 토지에 거주하는 가호의 수를 단위로 지급되었다.
- ④ 지방호족들의 경제기반으로 고려 무신정권 기까지 존속했다.

• 정답 : ①
 • 출제 영역 : 녹읍
 • 해설 : 제시된 자료는 고려 태조가 내린 조서로 녹읍에 대한 내용이다. ① 녹읍은 신라시대부터 시행된 토지제도로 관료 귀족에게 지급하여 조세와 노동력 수취가 가능하였다.
 • 바로알기 : ② 전사과나 과전법의 과전을 의미한다. ③ 녹읍은 가호의 수를 단위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지역 단위로 지급된 토지이다. ④ 호족의 경제 기반은 농장이다.
 • 민주국사 P. 197

19. 밑줄 친 ‘시집’에 해당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위향인들은 인왕산, 삼청동, 청계천, 광교 등의 지역에 많은 시사를 결성하여 문학 활동을 벌이면서 자신들의 위상을 높여 갔다. 그리고 문학을 하는 능력에는 신분의 귀천이 없음을 주장하면서 자신들의 시를 집성한 시집을 편찬하였다.

- ① 어우야담
- ② 연조귀감
- ③ 호산외기
- ④ 소대풍요

- 정답 : ④
- 출제 영역 : 중인들의 저서
- 해설 : 중인과 서얼층이 많은 재산을 모아 신분이 상승하면서 시사(詩社)를 조직하여 위향인으로 불리는 중인의 문화가 발달하였다.

• 바로알기 :

소대풍요(고시언)	영조(1737)	위향인 시집
연조귀감(이진흥)	정조(1777)	향리의 역사
호산외기(조희룡)	헌종(1844)	위향인 전기
규사(이진택)	철종(1859)	서얼의 역사
희조일사(이경민)	고종(1866)	위향인 전기
이향견문론(유재건), 흥동유주(홍세태), 일사유사(장지연) 등		

• 민주국사 P. 686, 786

20. 다음 글의 저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가의 역사는 민족의 소장성쇠(消長盛衰)의 상태를 서술할지라. 민족을 빼면 역사가 없으며 역사를 빼어 버리면 민족의 그 국가에 대한 관념이 크지 않을지니, 오호라 역사가의 책임이 그 역시 무거울진저 … (중략) … 만일 그렇지 않으면 이는 무정신의 역사이다. 무정신의 역사는 무정신의 민족을 낳으며, 무정신의 국가를 만들 것이니 어찌 두렵지 아니하리오.

- ① 이순신, 을지문덕 등 위인의 전기를 써 민족의식을 고취하였다.
- ② 한국의 독립운동 과정을 서술한 『한국독립운동지혈사』를 저술하였다.
- ③ ‘5천년간 조선의 얼’이라는 글을 신문에 연재하여 민족정신을 고취하였다.
- ④ ‘조선심’을 강조하며 정약용 연구를 중심으로 한 조선학 운동을 전개하였다.

- 정답 : ①
- 출제 영역 : 신채호
- 해설 : 제시된 사료는 신채호가 민족주의 사학의 토대를 마련한 「독사신론」의 내용이다. ① 신채호는 계몽사학 입장에서 「을지문덕전」, 「최도통전」, 「이순신전」 등 영웅들의 전기나 외국 흥망사를 저술하여 애국심을 고취시켰다.

• 바로알기 : ② 박은식, ③ 정인보, ④ 문일평에 대한 설명이다.

• 민주국사 P. 983

